

강진군, 국도23·국지도55호선 사업비 3,864억 확보

무안항토갯벌축제, 이번 주말 2막 오른다…

강진군의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마량~군동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 2차로 선형개량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최근 확정됐다.

두 사업은 2025년 1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에 오른 뒤, KDI 현장조사와 종합평가 거쳐 이번에 나란히 예타를 통과했다. 전국 142개 예타 대상사업 가운데 최종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4개, 전남은 8개다. 강진군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 2건을 동시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국도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장사업은 마량면 마량리에서 군동면 삼신리까지 18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82억 원이다. 마량항과 강진읍을 잇는 강진만 동부권 핵심 남북축이자 마량~고금, 고

금~신지 연륙·연도교와 연결되는 전남 남부권 주요 교통축이다.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은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부터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까지 14.2km의 굴곡지고 협소한 기존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2억 원이다. 당초 4차로 확장으로 신청했으나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인근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2차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반영됐다. 두 노선 준비는 교통안전과 생활 편의, 관광·물류 기능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23호선은 강진만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고려청자박물관, 가우도, 마량항 마량놀토수산시장을 거쳐 완도권 신지 명사십리와 해양치유시설, 고금도·약산도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축이다. 국지도55호선 역시 다산초당과 백련사, 석문공원에서 해남 두륜산·대흥사, 완도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청 전경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지난달 29일 막을 올린 제12회 무안항토갯벌축제가 이번 주말인 9월 5일과 6일, 더욱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개막 주간에 이어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무안항토갯벌랜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 주말에는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식과 무안갯벌탐방다리 걷기대회를 비롯해 장어잡기, 새우잡기, 갯벌해적탐험대, 칠면조 맨발걷기 등 갯벌 체험 프로그램과 워터타워,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등이 운영됐다.

이번 주말에는 배움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번 주말에는 갯벌 생태교육과 다양한 만들기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모집



목포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한다.

주택구입 대출이자율 월 최대 2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6억 원 이하 목포시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1명 이상 만 12세 이하)이며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지원사업 선정 가구,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추석 명절맞아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 상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함평사랑상품권의 적립률과 구매한도를 상향 운영한다.

함평군은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함평사랑상품권 모바일형의 적립률(캐시백)을 17%로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형 함평사랑상품권의 경우 캐시백 방식으로 적용된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정액이 출금되지만, 결제한 금액의 17%가 적립돼 다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된 금액에는 추가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군은 이번 특별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돕는 동시에, 관내 가맹점으로서의 소비 유입을 극대화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예산과 수요를 고려해 모바일 캐시백과 구매한도를 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 가을축제 3곳서 문화누리카드 쓸 수 있다

영암군이 9월 열리는 지역축제 3곳에 임시가맹점을 마련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축제에는 9월 4~6일 열리는 '2026 영암무화과축제'를 시작으로, 19일 '도선국사문화예술제', 19~20일 '영암 늦바닷불이 축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각 축제

장에 등록된 임시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식음료·농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은 축제 기간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가맹점과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특히 9월 19일 도선국사문화예술제에서는 전남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보부상'도 운영한다. 찾아가

는 문화보부상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를 위해 문화·공예상품 등을 직접 가지고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찾아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축제 현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살펴보고 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가족센터, '다함께 행복 프로젝트' 성료

신안군가족센터는 8월 한 달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함께 행복 프로젝트'를 운영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배우자 국가 언어·요리 체험, 부부성장교실, 가족 물놀이, 경제교육 및 목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신안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